

# 월간 실적보고

## 2015.02

### Summary of 2015 Feb

**1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22.1% 성장**

- 패키지 **15.7%** / 티켓 **39.2%** YOY 성장

패키지 4개월 연속 YOY 성장률 2자리수 (인원 10.4만명)

티켓 7개월 연속 YOY 성장률 2자리수 (인원 4.7만명)

**2. 일본, 유럽, 동남아 지역의 성장세 유지**

- 일본 **65.6%** / 유럽 **27.9%** / 동남아 **11.6%** 성장

- 일본 **6개월 연속 65% 이상 YOY 성장률**

- 유럽 **15년 2월 YOY 28% + 14년 2월 YOY 70%**

### 역대 2월 해외 총 송출인원 최고치 달성

패키지와 티켓 합산 인원 **YOY 22.1% (15.1만명)**를 기록하며, 15년 2월은 **6개월 연속 2자리수 성장률**을 보였습니다. 이번 2월은 긴 설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부족으로 인원 성장률이 전월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. 그러나, 15.1만명의 송출인원은 역대 2월 실적 중 최고치입니다. 또한, 2월은 전통적으로 연간 수익이 집중되는 성수기이기 때문에, 1분기 전체 수익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패키지는 약 **16%의 YOY 성장률**을 보이며, 연속 **2자리수 성장률** 기록을 **4개월**로 늘렸습니다. 2012년 이후 2월 실적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, 월간 송출객 **10.4만명**으로 15년에 **2달 연속으로 10만명**을 넘었습니다. 티켓 또한 **역대 최고의 2월 실적**을 기록, **4.7만명**을 송출하였고, **39% 성장률**로 작년 4분기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.

패키지와 티켓 모두 **14년 4분기 평균 수준의 높은 성장**을 이어갔으며, 성수기를 피하려는 소비경향이 증가함에도, 이와 같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, 올해도 아웃바운드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.

### 패키지와 티켓 2자리수 성장률 지속

전체 해외출국자 유치인원은 152,542 명으로 전년대비 **22.1%**성장

해외 패키지 유치인원은 104,971명으로 전년대비 **15.7%**성장

해외 티켓 유치인원은 47,571명으로 전년대비 **39.2%**성장

(패키지 YoY : 14년 9월 8.7% → 10월 9.5% → 11월 16.5% → 12월 21.8% → 15년 1월 31% → **2월 15.7%**)

(티켓 YoY : 14년 9월 22% → 10월 35.8% → 11월 25% → 12월 62.8% → 15년 1월 81% → **2월 39.2%**)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<b>2015</b>	104,971	47,571	152,542
<b>2014</b>	102,040	33,364	135,404
<b>YOY</b>	15.7%	39.2%	22.1%

### 이끌어가는 일본, 흔들림 없는 유럽, 든든한 동남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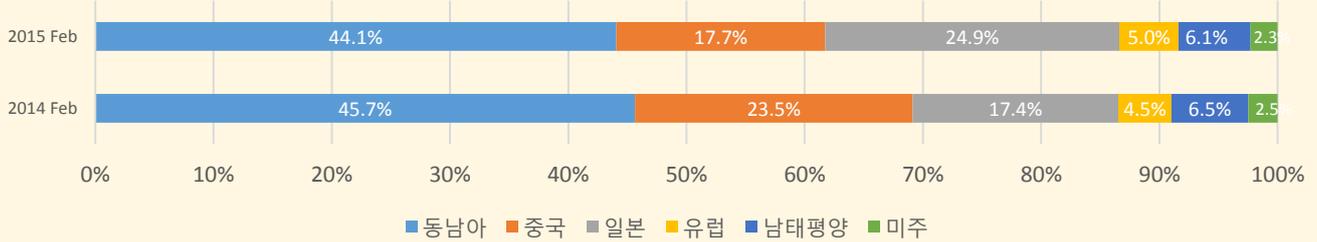
2월 해외 지역별 인원비중은 **동남아 44%, 일본 25%, 중국 18%** 입니다. 전년 성장률 36%로 기고 상태인 **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플러스 성장**을 하였습니다.

**일본** 지역은 **65.6%의 YOY 인원성장** 보이며, 2014년 9월부터 **6개월 연속 65%** 이상 성장 했습니다. 송출객 비중은 **25%**로 2011년 쓰나미 직전 수준을 회복, 이제는 일본 비중 최고치였던 **29%**를 기대할 만한 성장성을 보이며 15년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.

**유럽** 지역은 **27.9%의 성장**으로, 19개월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. **작년 2월 성장률 70%**로 기고인 상황에서 **15년 1월 보다 높은 성장률**을 기록하였습니다. 전통적인 유럽 성수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보이는 이런 좋은 실적은 유럽의 올해 전망을 밝게 합니다.

**동남아** 지역은 **11.6%** 인원성장을 했습니다. 일본의 성장세가 워낙 높아 **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**. 하지만, 14년 3분기까지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, 15년 내 지속 성장할 것입니다. 이와 함께 44%의 송출객 비중도 염두에 둔다면, 동남아는 15년 안정적인 **성장의 근간**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인원 비중



### 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명, %)

	3월	4월	5월
2015년	81,315	52,655	29,736
2014년	62,189	40,979	31,701
증감률	30.8%	28.5%	- 6.2%
2014년 마감	76,235	79,769	75,435

\* 2015.3.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15년 1분기의 **좋은 상황이 4월까지 이어지는 모습**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본 지역의 큰 폭 성장에 다른 단거리 지역이 어느정도 영향을 받겠지만, 15년 2분기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플러스 성장을 하며 **전체적인 볼륨 성장이 가능할 것**으로 예측됩니다.

**5월의 역성장**은 14년 5월 초반의 **일시적 기고효과** 때문입니다. 14년 5월 첫째주는, 1일 휴가 사용으로 6일 연휴까지 가능했던 상황에 힘입어, 98%의 예약률 증가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,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점증되어, 14년 5월 마감실적은 YOY - 4.6% 였습니다. 때문에, **올 5월**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**최종적으로 플러스 성장**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이와 같이, 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기저효과가 시작되는 시점인, 15년 2분기는 유럽지역 전통적 성수기이기도 합니다. 이런 점을 고려 시, **15년 2분기는 연간 성장에 기여하는 시기**가 될 것입니다.